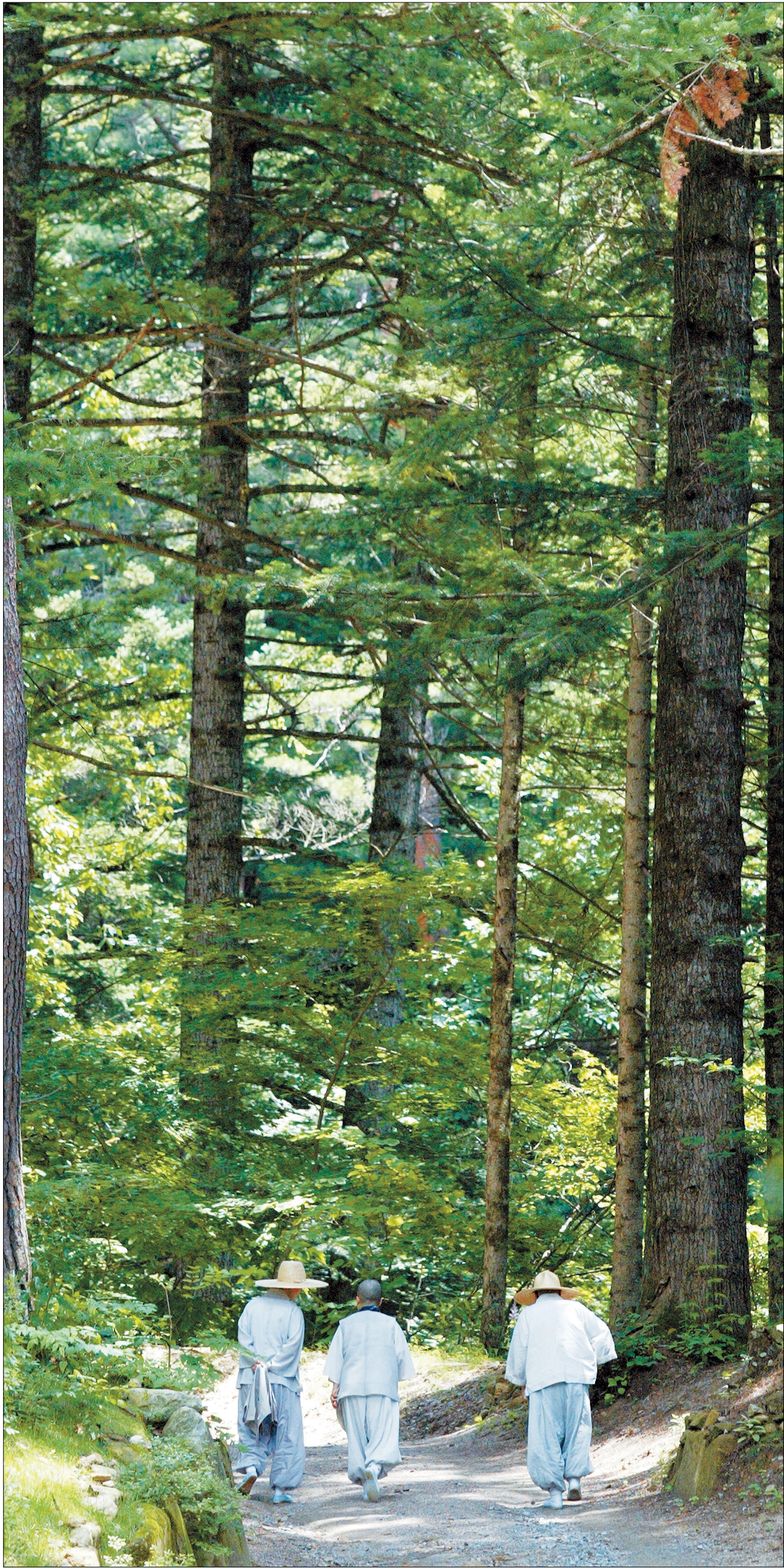


# 절 곁의 여름을 만나다



절에 가는 길. 걸어야 하고 때론 올라야 하는 길. 이 무더운 여름에 무엇이 절로 향하게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걸어야 하고 올라야 하는 길에서 우리는 먼저 절 곁의 자연을 만나게 된다. 숲길에 들어서게 되고, 물소리를 듣게 되고,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 천 번 만 번의 생각이 바람 한 점에 스러지고, 천 근 만 근의 몸뚱이는 땀방울 하나에 가벼워진다. 숲에서 쏟아지는 싱그러운 초록빛에 두 눈이 멀고, 씩씩이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가 멀어갈 때 짝 멀러서

일주문이 다가온다. 풍경 소리에 다시 눈을 뜨고 목탁 소리에 다시 귀를 열면 부처님 세상이다.

부처님께 보이려던 마음은 숲에서 잃었고, 나머지의 반은 물가에서 잃었고, 그 나머지의 반은 새소리가 물어갔다. 절보다도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와 살고 있었던 자연. 절에 가는 길에는 자연을 먼저 만나게 된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고즈넉한 산사에 머물며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템플스테이. 대나무 숲에 앉은 참가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자연 속에 머문다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힘든 일이 되었다. 사진은 밀양 표충사 템플스테이. 사진제공=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월정사 육수암 가는 길이다. 스님 세 분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전나무 숲길을 걷는다. 나무가 높고 숲이 깊으면 길도 깊어진다. 깊은 길을 걷고 있으면 '나'는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풍광으로 이름 난 절이 한 두 개가 아니겠지만 '풍광' 하면 봉화의 청량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청량산의 바위를 부처님으로 모신 청량사는 자연의 일부처럼 숲에 안겨있다. 사계절의 풍광이 변화무쌍해서 자연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도량이다.



영천 은혜사에 가면 보화루 앞에 작은 폭포가 있다.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도 떨어져 내리고, 무거웠던 마음도 함께 떨어져 내린다. 여름은 자연이 모두 일어나 울려하는 계절인 것 같다. 덥다고, 지친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뜬히 여름을 나고 자연을 나자.



어디에서 왔을까, 씩씩이 흘러서 하필 절가에 닿았을까. 흐르는 작은 개울물도 정해진 길을 딱딱 딱딱 인연을 따라 흘러간다. 승보사찰 송광사. 삼청교와 우화각 위로 보이는 개울물이 더위도 잊은 채 툭툭툭 흘러가고 있다.